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 촛불집회

9월 28일(토)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 도로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사'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국(曹國)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등양대 교수를 포함한 가족과 5촌 조카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다.

소의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이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뜻'이라고 하면서 집회 숫자를 허위로 과장해서 발표하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그만 해야 한다.

그토록 의혹이 많은 조국 장관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조 장관 보다 더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재가 친(親)정부적인 인사 중에서 많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언론 등에서 반대하니까 물러서면 체면과 자존심도 말아 아니고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레임덕 현상이 일찍 올 것을 우려했는지 모른다.

참가 인원을 주최 측과 여당은 200만 명이라고 하고, 야당은 5만 명이라고 하고, 언론은 서초구청이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 주최한 축제 참가자까지 합해서 당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초역과 교대역 등에서 하차한 인원이 약 10만 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버스는 교통 통제되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회 장소 인근의 지하철역 이용 승객이 가장 근접한 참가자 수일 것이다.

'국민의 뜻'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국민의 뜻을 간단히 요약한다.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국회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도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역전하여 앞서고 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동반 하락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도 검찰 개혁을 바라고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수용한다고 인사 청문회 등에서 수없이 밝혔다.

검찰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교수, 대학생, 의사단체, 변호사 단체 등의 지지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있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인 사건을 중단하거나 흐지부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한다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한다. 외압을 넣어서 덮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다시 불거져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진상이 밝혀지고 불행이 오게 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칭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임명장을 주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행사법 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촛불집회는 힘없는 시민들이 참다못해 일어나서 권력 비리를 규탄하는 방법이었다. 막강한 국가권력과 금력을 쥔 집권 여당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에서 버스로 동원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제 촛불집회는 정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진영(陣營) 싸움이 되어 버렸다. 나라가 완전히 두 패로 나누어져 패 싸움판이 되어 버렸다. 당력(黨力)을 집중하여 총동원력을 내러서 참가자를 동원하는 80년대, 90년대 장외(場外)정치로 돌아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와 부딪치고 있다. 촛불집회를 열고 서로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싸울 때는 싸우는 것 같이 화끈하게 한 판 붙는 것도 깨운한 일일지 모르겠다.

社說

사무장병원 근절시켜야 한다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해 국민 10명 8명꼴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다.

는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으로 답했다. 73.2%는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81.3%가 '찬성' (대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등을 꼽았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도 80.2%가 동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 봐',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 수 있으므로' 등을 들었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해야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7개나 돼 1959년과 함께 태풍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제18호 태풍 '미탁'이 밤사이 세력을 더욱 키우면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이며, 전남 서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어,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예보 시에는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재난정보를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며,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태풍이 왔을 때는 많은 비와 유리창을 깨부술 듯 몰아치는 강풍

으로 인해 떨어져나간 관판이나 깨진 유리창에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가 많다.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지붕, 창문, 출입문 등은 단단히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 또한, 가정의 하수구나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을 뚫어 두어서 물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하천 근처나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은 미리 점검하고,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차량운행이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김운호 / 여수소방서장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Munhwa Yungseong)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